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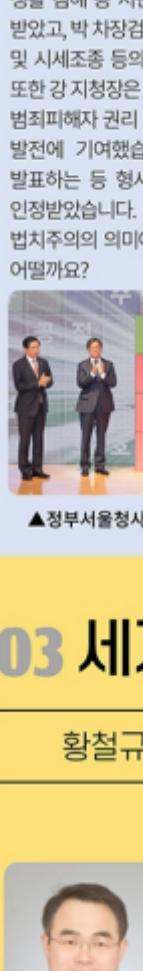
서울경자

17

다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박상기 법원장, 유남석 한법재판소장 등이 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도 려 <4명의 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를 맡고 있는 이성우 검사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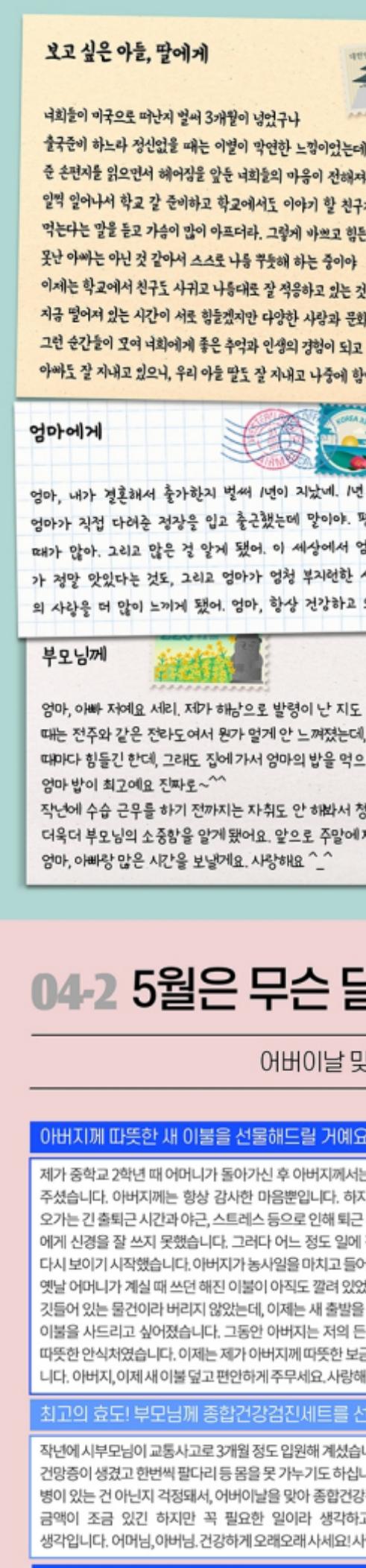


IAPI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총 32명)의 지역별 분포가 서구권에 쏠려 있어서 활 고검장 선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출장단은 ▲한국 검찰의 우수성 및 국제검사협회에 대한 기여도 ▲해외도피자 검거에 대한 각국 공조 강화 ▲서구 중심 회장 배출 관행 개선[지난 24년간 유럽과 호고검장의 국내·외 업무 성과 등을 집중 부각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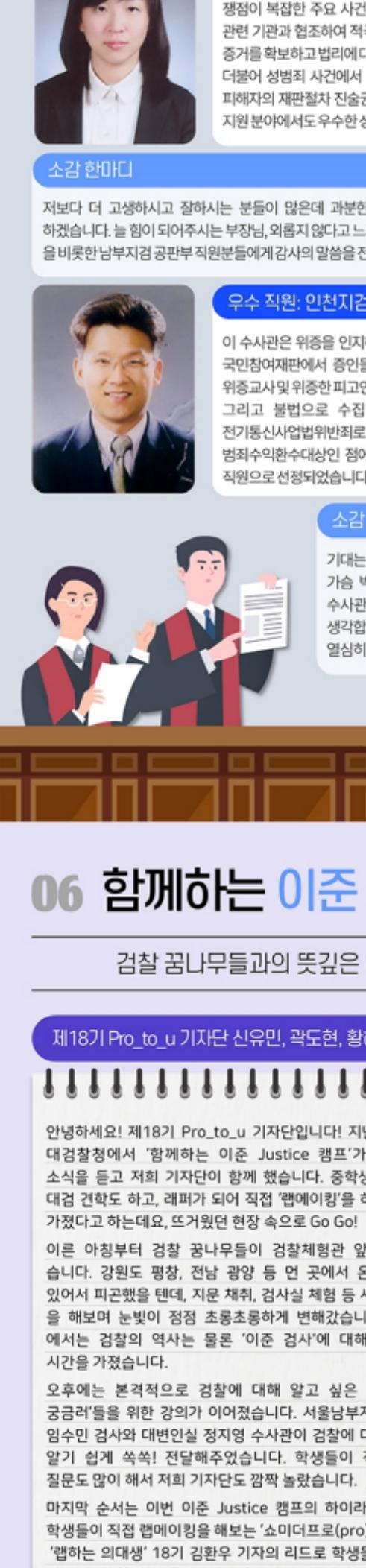
부회장을 맡아 한국의 형사조정 철자 등이 담긴 '한국형' 형사조정 제도가 글로벌 표준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점이 잘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에노스아이리스에서 열리는 IAP 연례총회에서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할 예정인 황고검장은 “혼자 힘이 아닌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 등의 도움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한국 검찰의 위상을 높이고 각국 검찰 간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큰 범죄는 국경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해외은닉 불법재산 환수수단이 해외도피사범 검거 등에 대한 각국 검사들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검찰,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월은 무슨 달? 가정이



날 檢, 빼어날 察



the Beat! 9명의 친구들이 창작의 고통 끝에 만들어낸 작품을
멋있게 공연해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다고, 평소에 와볼 수 없는
곳이어서 더욱 인상깊었다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해준 우리 친구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준 캠프가 미래의 검찰을 꿈꾸는 프로(pro)
궁금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검찰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번 달은 가로세로 날말풀이~

